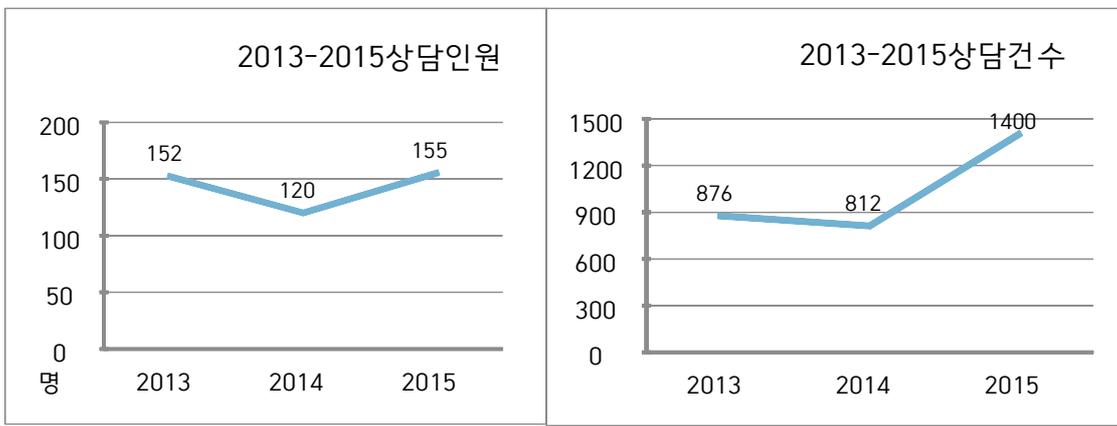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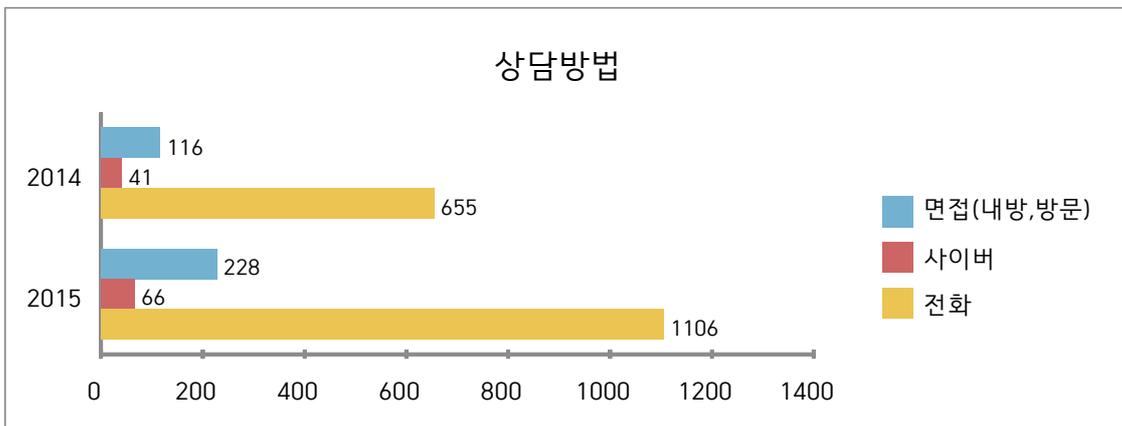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이룸]
2015 상담통계 및 분석

1. 상담인원과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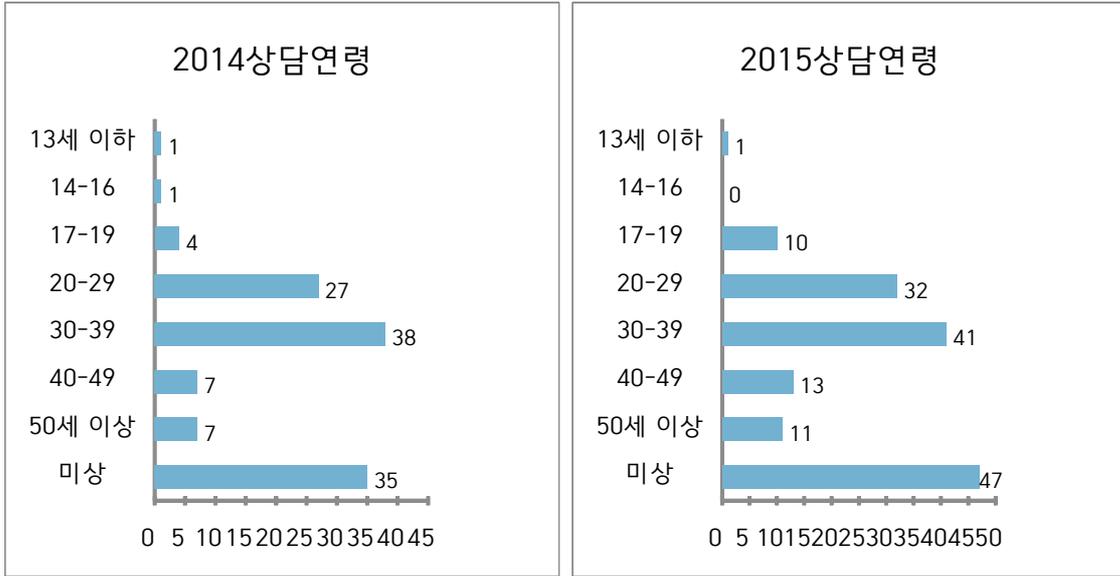
상담인원은 2015년 155명으로 2014년에 비해 29% 증가, 상담건수는 2015년 1400건으로 2014년 대비 72% 증가했다. 지속상담정도를 보여주는 상담인원 대비 상담건수는 7건에서 9건으로 증가하였다. 지속상담 비율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로 사회적 자원이 없는 채 성매매피해지원에만 의지하게 되는 십대/노년/장애 여성의 상담비율이 높아지면서 장기지속상담이 증가했기 때문일 수 있다.

2. 상담방법



전반적인 상담건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면접, 사이버, 전화상담 모두 골고루 증가했다. 방문상담에 지속적인 의료지원이 포함됨에 따라 의료지원의 증가와 더불어 면접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3. 상담연령



작년에 이어 10대 및 40-50대 이상 내담자의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다. 십대상담의 경우 청소년쉼터 및 기관, 심리 상담 센터, 학교 등 기관연계가 다수였으며 십대 내담자가 직접 상담요청을 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40-50대 내담자는 꾸준한 아웃리치(현장방문상담)로 증가하였다.

*십대 성매매

2015년의 관악구 십대여성 살해사건은 한국사회의 십대 성매매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가해자는 성구매를 빌미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수면유도제를 사용, 성폭력 및 갈취를 반복적으로 행해 온 자였으나 성매매로 만났음을 밝힐 경우 피해자들도 처벌받을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는 점과 경찰조사에 대한 불신 등으로 피해자들은 이 남성을 신고할 수 없었다. (많은 성판매자들은 폭력적인 구매자를 경찰에 신고하기 보다는 '진상'손님을 만난 운 나쁜 날로 간주한다.) 결국 십대 성판매자의 죽음 이후에야 구매자 1인과 성매매알선자 3인이 법정에 서게 되었다.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를 향해 십대 성매매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아동법 상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어 '피해'청소년과 다른 취급을 받는 현행법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별다른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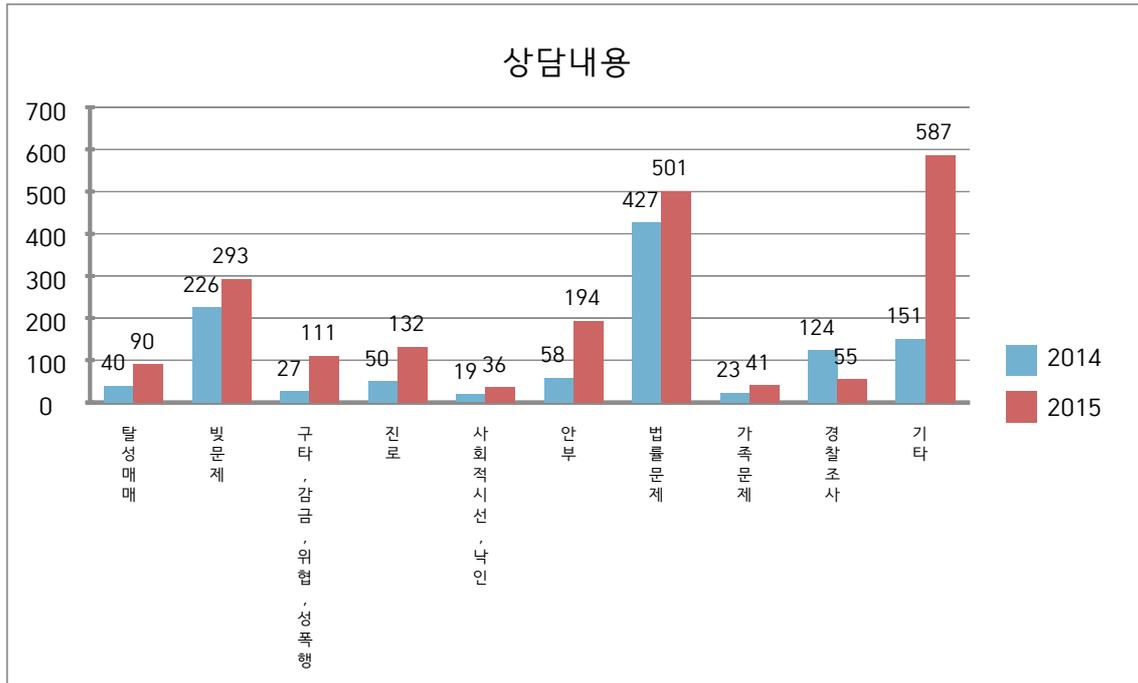
*노년 성매매

노년 성판매 여성들은 언제나 성산업에 존재했다. 이들은 대체로 긴 시간 빈곤을 겪어 왔고 지금도 겪는 중이며, 한국사회의 부실하고 거의 없다시피 한 복지체계 밖에 위치한다. 또한 한국 사회 노년 여성들의 임금노동은 대부분 강한 노동강도, 저임금, 오랜 노동시간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이 잔인한 현실 속에서 이들의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과 달리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청소년이 아닌 '대상'청소년으로서 처벌을 받는다. 106개의 청소년·여성·시민관련 단체 및 기관들은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꾸려 성구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개정하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운동(시민서명운동, 국회 앞 100일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자활’은 무엇일까? 어떤 ‘지원’이 가능할까? 노년 성판매 여성 등 빈곤노년인구의 생존권 보장이 절실하다.

4. 상담내용



*기타내용:의료지원,심리적불안,일정조정,생리불순,미혼모시설입소,입양,가출,심리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관련논의,심정호소,임신,건강문제,산재,성교육,내담자소개,기초생활수급자등록,대학교민,쉼터생활,임신,사진유출

2014년에도 두드러지게 증가했던 기타상담이 2015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내담자들이 생활전반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기타상담의 내용 중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주기적인 의료지원 및 미혼모시설입소/입양, 산업재해, 성교육, 기초생활수급자등록, 사진 유출이 있다.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요청은 꾸준하나 경찰조사가 줄어든 이유는 법적인 해결욕구가 있는 내담자와 법률상담을 진행하나, 이를 실제 형사 사건으로 다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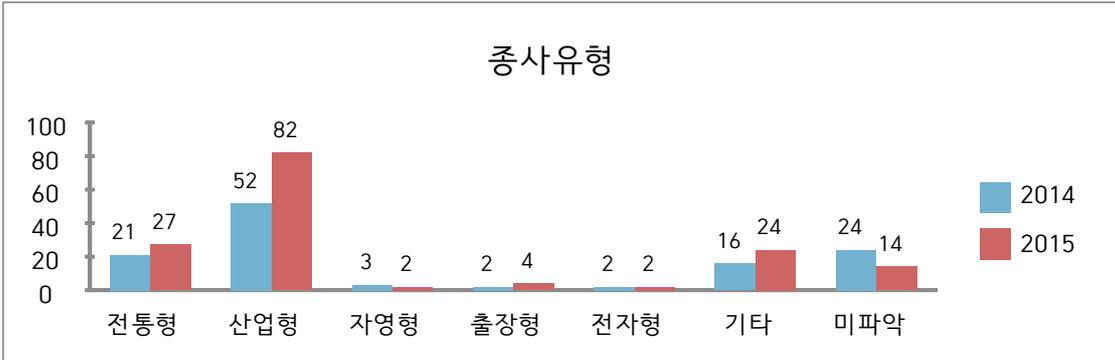
한편 ‘구타/감금/위협/성폭행’ 상담과 진로 상담이 각각 2-3배 증가하였다. 구타/감금/위협/성폭행 지원은 추심·협박, 사진 유출 등 성매매를 둘러싼 다양한 폭력피해상담을 포함한다. 이 내용의 증가는 여성들이 성매매로 겪는 문제와 직접적인 폭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킨다. 진로상담의 증가 이유는 구체적인 진로상담을 진행하면서 성매매가 아닌 다른 일을 탐색하고, 정보를 모으고, 이력서와 면접을 준비하는 상담이 장기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사회적인 지지체계 및 안전망 필요

성매매피해여성의 상담욕구는 단순한 법률·의료를 넘어 생활전반에 걸쳐있다. 이름은 내담자의 다종다양한 욕구에 반응하며 통합적인 상담 및 지원을 지향하고 있으나 자주 한계에 부딪힌다. 경제적인 자원이 없는 십대이지만 부모에게 집이 있으면 이 사회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성판매로 오랜 기간 생계를 지속해 온 노년/장애 여성들의 생존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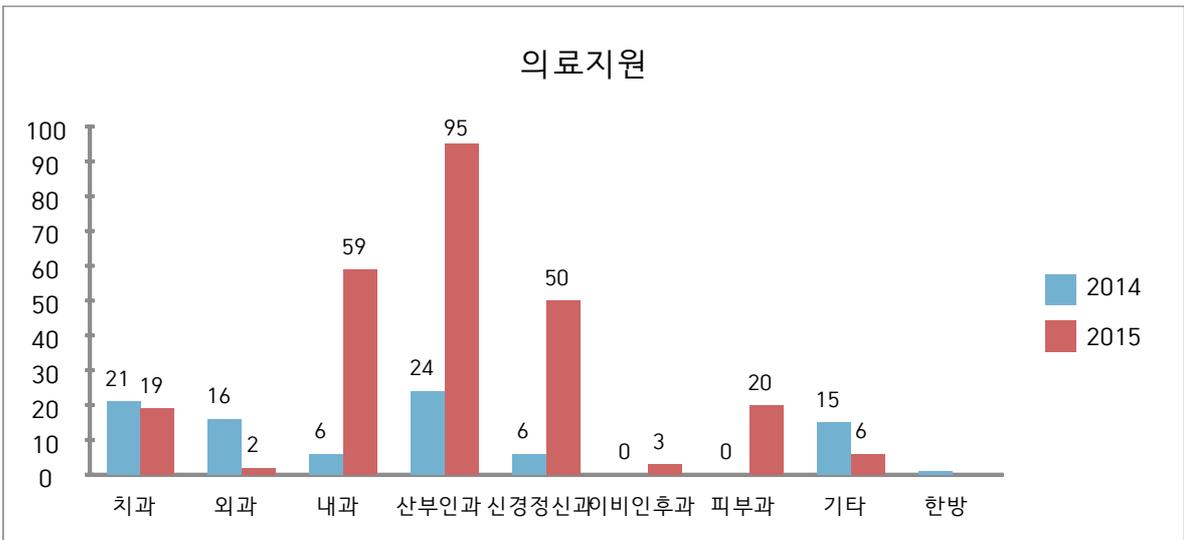
거권·건강권은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의 지원체계만으로 확보할 수 없다. 선별적인 사회복지가 아닌, 전사회적인 지지체계 및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복지제도가 필요하다.

5. 성매매종사유형



* 기타내용: 조건만남, 해외업소, 모델기획사, 오피스텔, 키스방, 종로3가, 대탈방, 성매매위기의 청소년
 종사유형의 분포는 예년과 비슷한 정도이며 기타내용에 예년보다 다양한 성매매업소가 포함되었다. 종사유형 미파악의 정도가 줄어든 것은 단순신규상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6. 의료지원



*기타: 가정의학과, 건강검진, 영양병원

의료지원은 3년 째 증가추세이다. 2014년 89건이었던 의료지원은 2015년 254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내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피부과 모두 주기적인 의료지원이 있었던 의료기관이다. 낮밤이 바뀐 생활, 업무에 해당하는 음주,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 및 우울감과 불면은 내담자들의 신체·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내담자들 중 다수가 산부인과적 질환을 겪는다.

한편 올해 역시 임신중절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나 임신중절 불법으로 인해 지원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내담자가 출산 및 입양을 결정하여 이를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 고령의 내담자들이 내과적 진료를 자주 필요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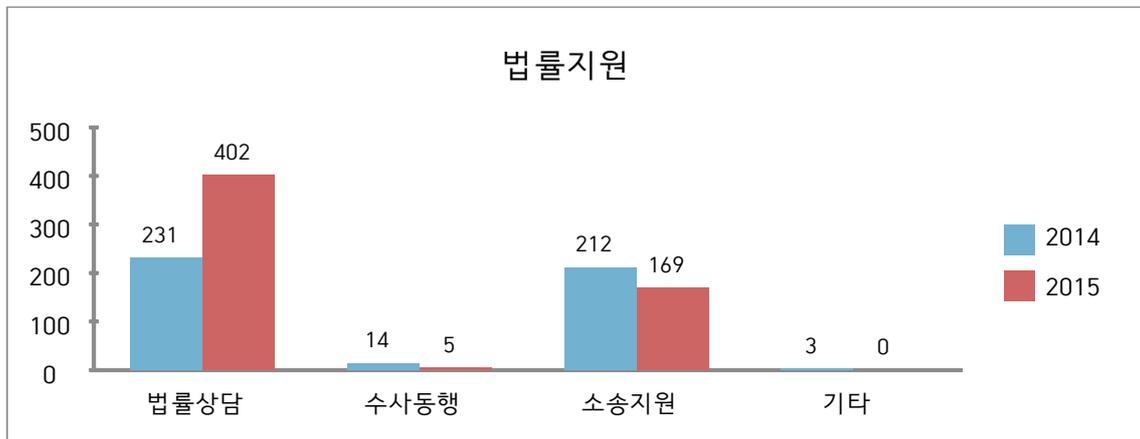
***의료지원은 왜 증가하는 것일까?**

십대, 고령의 성판매 여성에게 필요한 사회적 자원은 다방면에 걸쳐있다. 그 중 성매매상담소로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영역은 의료지원이다. 대부분의 성판매 경험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문과 불안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만났다가도 의료지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리고 내담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 환경-적절한 노동시간 및 생활임금, 통합적인 치료체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등-이 마련되지 않는 한 궁극적인 치료는 불가능한 채 상담소의 의료지원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사회복지제도의 드넓은 사각지대**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의 경제상황과 정확한 주거지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제는 그 사각지대가 넓고, 내담자들 역시 그 안에 위치한다. 이들은 빈곤하나 빈곤함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내담자들은 성매매로 이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없어 방치해 두었던 병원 방문을 상담소의 의료지원으로 시작하고 지속한다.

7. 법률지원



법률지원은 2014년 460건에서 2015년 576건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상반기에 드물었고 하반기에 급증하였다. 그 원인 중 하나로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다시 시작한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꼽을 수 있다.

*** 늘어난 압류사건: 끝나지 않는 빛이라는 족쇄**

2015년에는 압류 사건이 잦았다.

‘새로운 얼굴’을 원하는 성구매자들의 취향에 맞춰 성판매자들은 업소와 지역을 자주 옮기게 된다. 업주가 빛을 미리 주고 성판매를 유지하도록 하는 성산업의 특성 상 다수의 성판매자들은 업소에 빛이 많고, 업주 및 사채업자들은 빛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이 일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의 성판매 경험자들은 성판매를 그만 둔 뒤에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흔하다.

이렇게 성판매(경험)여성들이 주소지가 불분명한 채 여러 지역을 전전하는 사이에 업주 등 채권자들은 빛에 대한 소송을 걸고, 여성들은 알지 못한 채로 재판은 진행되어 공시송달(송달받

을 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명하는 것으로 당사자 송달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로 승소판결을 받아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내담자들은 통장을 사용하려다가 뒤늦게 압류사실을 알고 연락이 오는데, 이럴 경우 강제집행 정지신청(압류를 풀기 위한)과 추완항소(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에 대해 몰랐음을 주장하고 해당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것)를 모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선임비가 2배로 들고,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한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공탁금을 내야만 한다. 끝나지 않는 성산업 빛의 고리는 성판매를 그만 둔 뒤에도 압류라는 '합법적'인 형태로 내담자들의 삶을 휘저어 놓는다.

* 사기결혼, 이혼

한 남성이 장애가 있는 성판매 여성에게 사기를 쳐 결혼을 했다. 그 남성은 법적 보호자로서 여성을 정신과 병동에 입원시키고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였고, 여성의 가족들은 상담소로 연락을 해왔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조선족 성판매 여성들을 특정하여 성구매로 접근하고 감금 및 폭행을 행사하는 범죄자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다시 모아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담자의 이혼만 지원하게 되었다. 성판매자의 취약한 위치를 미끼로 폭력을 행사하는 성구매자들의 행태에 제재를 가할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판매자를 비범죄화하여 성판매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폭력적인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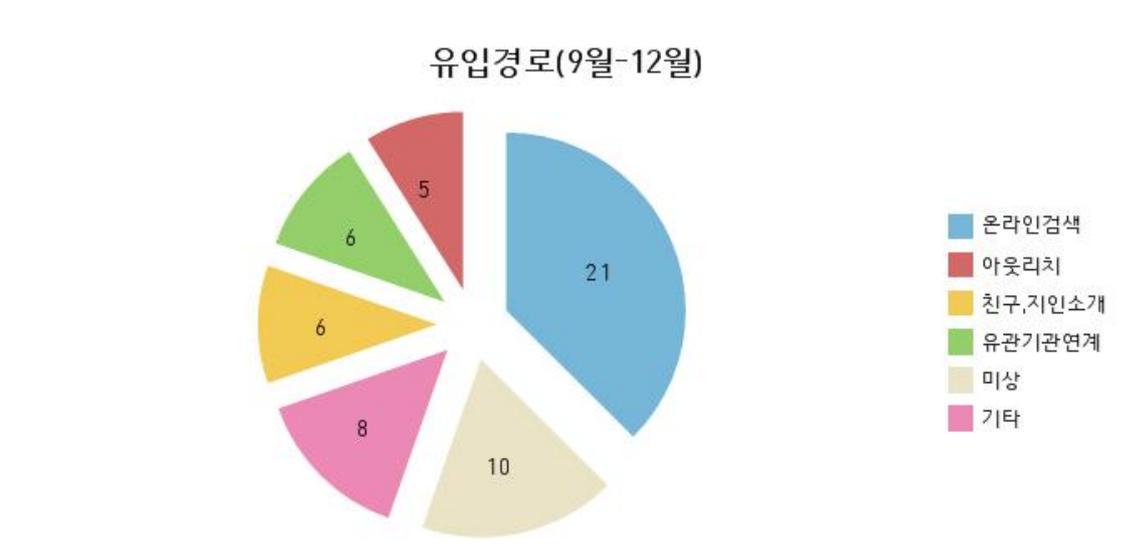
* 횡령 및 절도: 맥락을 살피지 않는 법의 위험성

성판매 여성이 업소를 고소하거나, 업소에 진 빛이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장부는 핵심 증거이다. 여성들의 장부가 이렇게 성매매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업주들은 여성들이 장부를 적지 못하게 하며 심한 경우 휴대폰 사용도 감시한다.

한 내담자는 업소에서 도망 나올 때 업소 장부를 들고 나왔는데, 업주는 이를 절도로 고소하였다. 더불어 내담자가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했는데, 대부분의 금액은 결근비, 지각비, 티켓비 등으로 부당하게 부과되었으나 경찰 및 검찰은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벌금을 구형했다. (그 뒤 정식재판을 진행하여 선고유예를 선고받음.)

성매매를 알선하며 부당한 돈을 착취하고 빛만 불리는 방식으로 성판매자를 성산업 안에서 착취하는 알선자들은 오히려 경찰 및 검찰에게 피해자로 불리고, 부당한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도망 나온 성판매자는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많은 성판매 여성들이 이렇게 범죄자취급을 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최소한 검·경만을 대상으로라도 성산업 및 성매매 안의 권력관계와 흐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그 맥락을 이해하여 조사했는지를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8. 유입경로(9월-12월)



*기타: 기존신규, 114문의

내담자들의 상담소 유입경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홍보방식을 탐색하기 위해 2015년 9월-12월까지 내담자의 상담소 유입경로를 분석하였다. 총 56명 중, 온라인검색으로 21명, 기존신규 및 114문의로 8명, 친구·지인소개와 유관기관연계 각 6명, 아웃리치로 5명이 상담소와 만났다. 많은 내담자들이 검색을 통해 상담소로 연락을 취했다. 특히 이름이 네이버 지식인에 적은 답변을 보고 연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이름은 익명성을 보장하며 접근이 쉬운 온라인 공간에 성매매피해지원을 더 많이 알려내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기타 경로 중 기존신규인원은 최소 1년 간 상담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다시 상담 및 지원 요청을 한 인원을 말한다. 기존신규인원의 증가는 성판매 경험으로 인한 문제 및 사건들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한편 아웃리치를 통한 상담 증가는 청량리 집결지 중 쪽방에서의 입소문 때문으로, 올해부터 청량리 집결지 여성들의 지원에 집중하는 상담소가 한 개 더 신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지는 미지수이다.

9. 마치며- 성매매는 사회문제의 총체이다.

2015년은 십대/노년/장애 여성의 상담 및 지원이 유독 많았다. 이러한 사례들에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며, 성매매피해상담소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복지자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국 지원 가능한 곳이 성매매피해상담소뿐인 경우가 다수였으며 이런 경우 상담소가 할 수 있는 지원범위는 제한적이고 내담자들의 상황도 변하기 힘들다. 한국 노년 사회복지의 빈틈을 의료지원으로만 메우는 실정이다. 지원 대상자의 현실을 반영하여 문턱을 낮춘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가 절실하다.

십대 여성의 경우, 내담자와 관계하는 성인들(부모, 교사 등)의 태도와 자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러나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십대 여성 개개인의 필요만 지원할 수 있을 뿐, 주변 환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내담자들은 자신의 성판매 경험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하기 때문에 상담소는 그 존재를 감춘 채 지원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 안의 십대에게는

학교 교사들의 태도와 지원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원가족 안의 십대들은 원가족들의 태도 변화가 핵심적이다. 학교 밖의 십대에게는 안정적이고 존중받을 수 있는 다른 사회자원이 절실하지만, 대부분 관리와 통제 하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대 당사자들은 선뜻 그 공간으로 발을 옮기지 않는다. 특히 서울의 동북쪽에는 학교 밖 십대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마음을 둘 수 있는 지원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2015년의 상담현황 및 사례들은 성매매가 빈곤, 노동, 장애, 성별, 폭력, 건강, 주거, 금융, 복지 등 사회적 이슈들의 총집합체임을 재확인 시켜 주었다. '성매매'만 들여다봐선 성매매를 알 수 없다. 성판매자 개개인의 삶에 함께 서서 지지하는 상담과 동시에 성매매를 둘러싼 영역들과의 연결성을 인지하고 이 영역에서의 지지체계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